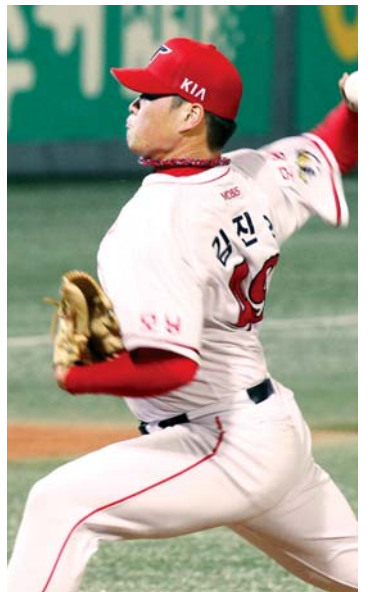


## 세계 톱 클래스 배구의 향연 ... 광주 1만 2000명 '구름 관중'



18·19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광주일보사 후원으로 열린 한국과 쿠바의 월드리그 대륙간 라운드 D조 조별리그 경기에서 이틀간 1만2000여 관중이 몰려 세계 최정상급 배구의 향연을 즐겼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돌아온 김진우 '희망投'



돌아온 김진우가 홈 구장의 만원 관중 앞에서 속죄투를 선보였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김진우(28)가 1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문란한 사생활 때문에 경기장을 떠난 지 3년 11개월만에 마운드에 올랐다. 17-1로 앞선 8회초에 등판한 김진우는 명품 커브로 첫 타자 이영욱의 헛방망이질을 유도하며 복귀 후 첫 기록을 삼진으로 장식했다.

진흥고 동기 손주인을 유격수 땅볼로 잡으며 투아웃을 만든 김진우는 김상수에게 내야 안타를 맞긴 했지만 강명구에게 두 번째 삼진을 뽑아내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다. 13개의 공을 던진 김진우는 최고 구속 148km의 직구와 전매 특히 쪽포수 커브로 1이닝 1피안타 2탈삼진을 기록하면서 특급 우완의 부활을 알렸다.

이날 17-1로 점수 차가 크게 벌어졌지만 무등야구장을 찾은 팬들은 김진우의 등판을 지켜보기 위해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다.

김진우는 "다시 야구를 할 수 있게, 유니폼을 입게 해주신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선수단과 프런트에게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팬들이 제 이름을 연호해 주시는 것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 좋은 출발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19일 복귀 후 두 번째 등판에서는 볼넷 두 개를 기록했다. 2-1로 앞선 8회말 2사 1루에서 등판한 김진우는 첫 상대 조영훈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강명구를 땅볼로 처리하는 것 같았지만 1루수 최희섭의 송구실책으로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이후 김상수에게 볼넷을 내준 뒤 손영민에게 마운드를 넘겨주면서 두 번째 등판을 마무리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쿠바의 벽은 높았다

### 월드리그 배구, 한국 이틀 연속 쿠바에 0-3 완패

#### 한국 3승5패 조 3위

한국과 쿠바가 패기와 파워로 맞대결을 벌인 월드리그 배구대회가 빛고을 광주를 배구 열기로 물들었다.

박기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배구 대표팀이 18·19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세계 랭킹 4위 쿠바와 월드리그 대륙간 라운드 D조 조별리그 경기를 펼쳤다.

광주일보 후원·국제배구연맹 주최·대한배구협회와 광주광역시 배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쿠바의 타점 높은 강타와 대포알 서브에 이틀 연속 세트 스코어 0-3으로 아쉽게 패했다.

하지만, 양팀이 선보인 수준 높은 테크닉과 파워·패기 넘치는 플레이는 첫날 5000명, 둘째 날 7000명 등 이틀 동안 염주체육관을 찾은 1만2000 관중에게 세계 톱 클래스 배구의 진수를 즐기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

에 충분했다. 전날 세트 스코어 0-3(20-25 22-25 20-25)으로 패배한 한국은 19일 설욕전에 나섰다. 쿠바가 1세트부터 거센 공세를 펼치며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쿠바의 왼손 공격수 페르난도 에르난데스와 윌프레도 레온에게 서브 에이스를 허용하며 9-12로 끌려가던 한국이 '신예 공격수' 김정환(우리 캐피탈)을 앞세워 추격에 나섰다. 세터 한선수(대한항공)의 서브 특점으로 13-13 동점에 성공하며 광활한 기 싸움이 벌어졌지만 쿠바의 집중력이 앞섰다. 전광인과 한선수의 서브 범실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23-25로 1세트를 내쳤다.

한국은 2세트에서도 쿠바의 강서브에 흔들리며 13-25로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재치 넘치는 최홍석(경기대)의 블러지기와 박준범(KEPCO45)의 백어택 등으로 3세트 초반 12-8로 앞서기도 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쿠바에 승기를 넘겨줬

다. 쿠바의 벽에 박준범과 곽승석(대한항공)의 공격이 막혔고 서브 특점까지 내주면서 18-25로 3세트도 지키지 못했다.

최홍석과 전광인이 13점과 12점을 만들며 분전했지만 쿠바의 수비벽과 파워에서 밀리며 블로킹(1-11)과 서브(2-7)에서 열세를 기록했다. 쿠바의 파워에 세트 스코어 0-3으로 패를 기록한 한국은 이탈리아전에 이어 4연패를 기록하면서 3승5패(승점 10점)로 조 3위로 내려앉았다. 쿠바와의 역대 전적은 4승47패가 됐다.

한국에 2승을 가져간 쿠바는 5승3패로 승점 15점을 챙기며 조 2위에 올랐다. 이탈리아가 7승1패로 조 1위를 달리고 있고, 1승7패의 프랑스가 4위다.

안방에서 조별리그 8연전을 마친 한국은 이탈리아(24·26일)와 프랑스(29일·7월1일)로의 원정에 나서 조별리그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고교야구 주말리그 진흥고·광주일고 2승

진흥고와 광주일고가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 광역리그에서 2승째를 거뒀다.

진흥고가 지난 18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주말리그 광역리그 대전고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달렸다. 진흥고 선발 조영민이 9회까지 6피안타 4사사구 6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로 완봉승을 장식했다.

4회초 선두타자 김성욱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박창빈의 적시타때 홈을 밟으며 선취점을 만들었다. 6회초에도 김성욱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양구열의 중전안타때 홈에 들어오면서 2-0이 됐다. 진흥고는 8회

1점을 더하며 3-0으로 승리했다.

광주일고도 18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충주성심학교와의 경기에서 11-0으로 5회 콜드게임승을 거두며 2승을 기록했다. 화순고도 천안 북일고를 7-5로 제압하고 두 번째 승리를 가져갔다.

동성고는 청주고에 2-4로 패했고, 군산상고는 4-10으로 세광고에 졌다. 순천 효천고는 광주고와의 경기에서 2-5로 뒤지던 8회 사사구 3개와 윤완의 적시타로 2점을 더했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4-5로 1점차 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약물 마라톤' 선수 20~30여명 소환 조사

일부 마라톤 선수들이 기록 향상을 위해 금지 약물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국 체육계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경찰수사의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마라톤 감독 정모(51)씨의 지도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도내 모 학교 선수들과 실업전 전·현직 마라톤 선수 20~30

여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충북의 한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주사제를 투약받은 선수 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출장조사를 벌였다"며 "이 중 일부는 빈혈 수치가 정상임에도 철분제를 투약받는 등 의심의 여지가 있어 다른 선수들의 진료 기록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Golfer를 위한 새로운 제안

### 리즈골프(Liz Golf) 프라이머 호남 VIP 출시

"본인+무기명3인 그린피 전액무료"  
100%보증금 +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주식회사 리즈골프

##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이란?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현지 골프장에서 바로 회원대우
- ① 수도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주중회원 대우.
- ② 영남권/충청권/강원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회원 대우.
- ③ 호남권/제주도 : 주중, 주말 ⇒ 무료 라운딩.
- ▶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호남지사 개소기념 특별혜택

- ▶ 주중 5회 무료 라운딩 추가혜택(선착순 50명)

기타 회원혜택

- ▶ 제주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제주골프투어 제주골프클럽 15박 회원대우)
- ▶ 해외 골프투어 5개국 23개 명문 골프장 전 일정 지상경비 회원대우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 ▶ 매년 회원의 날 친선 골프대회 개최

계좌번호  
100-023-066943(신한), 349437-04-000608(국민)  
예금주 : (주)리즈골프

리즈골프 주식회사 리즈골프

상담문의 TEL. 062)371-1800(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6 골프프라자 B.D 5층

상품명	가입금액	보증금	가입기간	회원자격	골프서비스	숙박서비스	모집인원
프라이머 호남VIP	15,200만원	전액 보증금	5년	기 명-1인 무기명-3인	주중8회, 주말4회/월 (월12회 / 년108회)	27평형대 년 60박	9명
플래티늄	6,400만원			기 명-1인 무기명-1인	주중3회, 주말1회/월 (월4회 / 년39회)	27평형대 년 15박	32명
프라이머	3,800만원			기 명-1인	주중2회, 주말1회/월 (월3회 / 년27회)	25평형대 년 15박	